

# 인구감소도시의 인구특성별 지역 인식 차이: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을 사례로\*

## Regional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Population Characteristics in Shrinking Cities: Focus on 4 Cities in Gangwon-do

채정은 Chae, Jeongeun\*\*, 박성남 Park, Seongnam\*\*\*, 황병춘 Hwang, Byung Choon\*\*\*\*

### Abstract

Shrinking Cities is an approach to strategically and wisely rebalance cities experiencing consistent population and economic decline to match their diminished size. However, in Korea, the approaches of declining cities are often aimed at increasing the region's population, and local strategies for declining population areas are also often aimed at population inflow. To move forward with the shrinking cities approach, a strategic and appropriately scaled plan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s needed. For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region, this study attempted to use four regions in Gangwon-do to understand how residents and living populations perceive their region.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responses in terms of the region's current status, potential, and development potential in all four of these regions based on population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n examination of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 caused by population characteristics as seen in a region should begin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gion's unique traits.

Keywords: Regional Cognition Differences, Shrinking Cities, Depopulated Areas, Gangwon-Stat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몇 년 간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을 기점으로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인구감소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0). 이뿐만 아니라 인구가 특정 몇 개 대도시에 집중되는 인구 불균형 분포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2020년에는 마침내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월하게 되었다(통계청 2020).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 측

\* 이 논문은 건축공간연구원의 2023년 기본과제인 ‘맞춤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체계 연구(2023년 발행 예정)’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 뉴캐슬대학 계획학 박사과정(제1저자) | PhD Candidat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Landscape, Newcastle University | Primary Author | ecochae@gmail.com

\*\*\*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연구위원(교신저자) | Resesarch Fellow, Sustainable Urban Research Group,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 snpark@auri.re.kr

\*\*\*\* 뉴캐슬대학 계획학 박사과정 | PhD Candidat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Landscape, Newcastle University | B.C.Hwang2@newcastle.ac.uk

면에서, 일부 도시들의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 자원의 불균형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도시들을 소멸, 감소와 같은 부정적 뉘앙스의 용어로 문제화시켜 명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17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소멸을 억제하는 장기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통합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 법에 의해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이 지정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국고보조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기금은 지자체가 계획·제출한 지역 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된다.

축소도시는 인구감소를 포함하여 경기침체, 고용감소, 사회적 문제와 같은 구조적 위기의 징후를 경험하는 도시공간으로 여겨진다(Martinez-Fernandez, Audirac, Fol and Cunningham-Sabot 2012). 축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도시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도시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구감소에 대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규모가 작아진 도시들에 맞도록 스마트 축소, 적정규모로의 조정과 같이 도시 규모를 현명하게 축소해 나가도록 하는 접근방식이다(박운미 2018).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감소 대책들을 살펴보면, 아직 인구감소 문제를 축소도시 개념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 계획과 대책들은 인구감소, 인구소멸, 인구절벽과 같은 용어들로 명명되고 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문제 접근 시에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으로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에서 인구감소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쇠퇴나 축소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축소된 도시에 맞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방소멸기금 역시 지역들의 각 상황에 맞도록 조정·운영될 필요가 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각 지역이 가진 자원이나 역량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은 행정을 위한 인위적인 경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지자체들이라 할지라도 매우 다른 지역 속성을 가진다. 기금을 기획한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자체적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도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지역소멸 사업이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지자체들의 사업이 다양화되지 못한다는 점이 비판의 중심에 있다. 무엇보다도 다차원적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지역의 축소에 대한 논의를 '지역의 인구증가'라는 산술적 정책목표에 한정하는 것은 지역의 구조적 문제에서 지역을 배제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거주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주민들이 인구특성별로 지역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또한, 정책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들의 지역 인식을 비교한다. 지역에 생활기반을 둔 주민들과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지역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지역의 계획과 정책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들의 특성별로 지역에 대한 인식이 차이 나는 경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

## II. 선행연구

### 1. 이론적 배경

도시에서의 인구감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Oswalt and Rienets(2006)는 전세계 370여개의 도시에서 지난 50년 동안 10%의 인구감소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거주지에 사용되지 않은 공간과 관리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지며, 높은 범죄율과 고령 노인들이 인구 구성의 주를 이루는 등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초기에, 이 문제에 직면한 도시들은 재생의 관점에서 낡은 도시를 재건해서 사람들을 되돌아오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했었다(Hollander, Pallagst, Schwarz and Popper 2009).

하지만, 기존의 재생 전략들이 재생에 들어가는 자원 대비 인구의 리턴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음을 인지하며 학계에서는 인간과 도시, 사회문제에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감소 문제를 '축소(shrinkage)'의 개념으로 재개념화했다. '축소도시(Shrinking Cities)'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구감소와 경제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Martinez-Fernandez, Audirac, Fol and Cunningham-Sabot 2012; Laursen 2009). 이 개념은 1980~90년대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주목

을 끌기 시작했다. 이 개념을 보다 이르게 받아들인 여러 도시에서는 이 위기에 현실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Hollander, Pallagst, Schwarz and Popper 2009).

반면, 인구감소 문제를 다루는 다른 개념으로 '지방 소멸'이 있다. 이 개념은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sup>1)</sup>(2014)에서 사용한 용어로,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도시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학계에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소멸(消滅, 사라져 없어짐)이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이 개념의 관점은 '인구감소' 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축소도시'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른 단어로 개념화하는 것은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축소도시 개념은 인구감소가 뚜렷한 도시들에서는 더이상의 성장을 지향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도시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의 접근이다(Popper D. E. and Popper F. J. 2002).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도시들의 대부분은 도시의 쇠퇴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도시와 지방소멸, 두 개 중 어느 용어로 지칭하느냐에 대한 것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20). 이런 상황에서 지방 도시의 인구 자연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역시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기는 어려운 대안이다. 인구감소 문제를 '인구재증가'에 두기 보다는 축소도시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지금

1) 일본 창성회의에서 발간한 보고서로서 제목은 成長を続ける21世紀のために: 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이고, 마스다 보고서(増田レポート)로 불림.

의 도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여 도시의 활력을 높일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2. 연구 동향

축소도시와 인구감소 문제를 다룬 연구들에는 지역을 다각도로 분류하려는 시도들이 많다. 박성남, 류수연, 최가윤(2023)은 인구감소지역들을 특성별로 군집화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명미, 안옥희(2020)는 SWOT 분석을 통하여 경북의 7개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광진, 유석연(2021)은 인구이동에 초점을 두어 군집분석을 통해 도시를 유형화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지역의 위치나 규모에 따라 인구 유출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고, 지역의 상호작용을 감안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지역 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을 유형화한 연구 이외에 도시계획이나 재생 전략들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성은영, 임유경, 심경미, 윤주선(2015)의 연구는 '스마트 축소'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도시가 축소되어 가는 현상을 수용하여 감소된 인구에 맞춰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구형수, 조판기, 윤정재, 이다예 외(2016)는 우리나라 축소도시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공간구조 재편 전략을 제시하였다. 임형백(2017)은 축소도시의 여러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축소도시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축소도시들의 특성을 파악해 보려는 연구들도 있다. 이현정(2021)은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는 도시들을 선정해 가구와 거주 특성에 초점을 맞춰 지역적 특징을 도출했는데, 거주 환경 낙후와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형수, 조판기, 윤정재, 이다예 외(2020)의 연구는 축소도시들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국공유재산인 건물의 절반 정도가 이용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공간의 비효율적 사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방안들을 제안했다. 지역의 인구감소가 도시 전체적으로는 균일하지 않고 지역에 구멍이 난 것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 천공 현상으로 명명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도 있다(손가영, 홍성조 2023). 이들은 도시 천공 현상이 서비스 공급의 한계나 지역 안전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축소도시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i)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 ii) 유휴시설, 공간을 활용한 계획의 필요성, iii)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축소도시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지역 스스로의 문제인식과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개별 지자체에 대한 상세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지자체는 지역 계획수립시행의 기본 행정 단위로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관련된 여러 제반 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의 기반인 설문조사는 강원특별자치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지역의 지역 정체성에 대하여 지역의 자가 진단을 위한 것으로서, 지역의 특징점과 향후 지역의 성장 방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설문지는 대상자(주민과 공무원)에

표 1\_설문지 구성

문항 구분	범주 설명	주요 설문 내용	문항 수	
1	인구	As-is	지역 인구와 주거 현황에 대한 질문	20
2		To-be	인구감소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전략	10
3	입지(자연자원/인공요소)	As-is	지역의 입지적 특징	20
4		To-be	지역 입지를 활용한 전략	10
5	지역 가치	As-is	지역 가치	20
6		To-be	지역 가치 창출/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	10
7	지역 생활양식	As-is	지역 생활 및 경제	20
8		To-be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10
-	응답자 분류 질문		성별, 연령, 출생지	3(4)

주: 강원특별자치도, 국가통계포털(KOSIS 2023)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따라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 두 가지 설문지는 인식에 대한 설문 내용은 같고, 인구 속성지표에 대한 질문에 차이가 있다. 주민에게는 거주지역에 대한 질문이, 공무원에게는 근무지의 위치, 거주지와 근무지의 동일 여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두 설문지의 '지역 자가 진단' 질문은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지역의 현재 상황에 관한 내용(지역이 가진 자원과 잠재력, As-is), 지역의 발전방향(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발전 상, To-be)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거주지 혹은 근무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매우 그렇다(7점)/대체로 그렇다(6점)/ 다소 그렇다(5점)/ 보통이다(4점)/ 별로 아니다(3점)/ 대체로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

설문 문항은 총 125개이고, 응답자 분류를 위한 인구 속성 질문 5개, 진단 지표 질문 120개로 되어 있다. 설문 문항은 8가지 범주(구분)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 범주당 10개에서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속성 질문은 성별, 연령, 출생지로 구분되어 있다. 청년층에 대한 연령 기준은 여러 분야별로 다소 상이하다. 법령 기준으로는 만 34세 이하,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들의 제한은 만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40세를 기준으로

젊은 층(40세 미만)과 중장년층(40세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출생지는 해당 지역의 정착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 토박이와 아닌 사람을 구분한다. 토박이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온 사람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와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고, 외지인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 지역에 연고를 두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 관계자는 생활인구가 해당된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역에 관계성을 맺고 있는 외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나라살림백과 2023), 거주가 아닌 생활(관계)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그룹 간에도 지역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다.

설문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12개 지자체에 대해서 2023년 6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고, 주민 388명, 공무원 101명 총 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의 공무원 응답 중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과 관련된 샘플을 제외한 결과, 분석을 위한 유효 설문 결과는 총 444개이다. 강원특별자치도 12개, 지역별 응답 수는 태백시 35개, 영월군 35개, 정선군 32개, 철원군 31개, 화천군 31개, 양구군 28개, 고성군 26개, 양양군 25개이며, 40개를 넘는 지역은 4곳으로, 삼척시 57개, 홍천군 53개, 횡성

표 2\_4개 사례지역의 주요 현황

지자체	인구(명, 2022) (도내 비율)	세대	행정구역(개소)			면적(k㎡, 2019) (도내 비율)	소멸위험지수(2022) (위험 읍면동)
			읍	면	동		
강원특별자치도	1,539,274	751,600	24	89	74	16,871.73	0.53(146)
삼척시	64,296(4.2%)	34,083	2	6	4	1,187.81(7.0%)	0.32(11)
홍천군	67,959(4.4%)	34,304	1	9	-	1,820.55(10.8%)	0.33(10)
횡성군	49,595(3.2%)	23,702	1	8	-	998.00(5.9%)	0.27(9)
평창군	41,084(2.7%)	21,775	1	7	-	1,463.96(8.7%)	0.27(8)

주: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2023), 국가통계포털(KOSIS)(2023)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군 43개, 평창군 48개이다. 회수율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규모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4개 지역을 사례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4곳은 인구감소지역 중 소멸위험 읍면동 비율이 100%이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도 소멸위험 읍면동 비율이 100%이지만, 유효부수가 25~32개 사잇값을 가지므로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소멸위험 읍면동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 순이다(<표 2> 참조). 이 4곳은 설문 조사 결과, 표본 수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지역들이다. 지역들이 어떻게 인구감소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인구감소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된 분석 방법은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는 t-test 방법이며, 이를 통해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 2. 사례대상지 개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가 지역의 현재 현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 지역에 대한 주요 현황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사례지역들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준다. 삼척시는 바다와 인접해 있고 홍천군, 평창군, 횡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부쯤에 위치한다. 전체 면적 중에 산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들로 산림자원이 풍부하지만, 지역의 산업 비중은 4곳이 다소 상이하다.

4곳 모두 인구감소가 매우 두드러진 지역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増田 寛也) 학자가 만든 지수로(마스다 히로야 2015),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수이다(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2020). 이 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인구감소와 유출이 심각한 지역이 된다. 1.0이상의 값을 갖게 되면 위험 정도가 보통으로 분류되게

그림 1\_사례 지역의 위치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2023) 자료를 저자 수정

되고, 0.2에서 0.5사이의 값을 갖는 지역들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0.2 미만의 값을 갖는 지역들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4개 지역은 연 기준 값으로 '소멸위험지역'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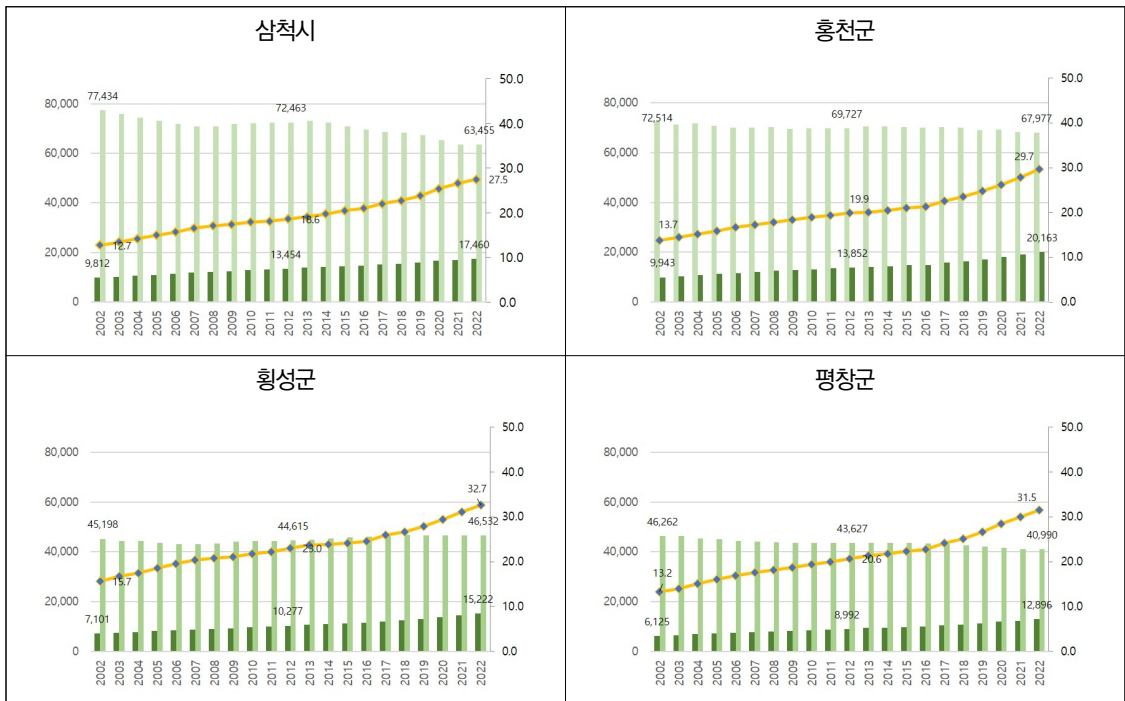
<그림 2>는 사례지역별 인구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4개 지역 모두 2002년 이후 지자체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짙은 초록색으로 된 막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인구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노란색 실선으로 된 그래프는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데, 삼척시는 2022년 기준 27.5%, 홍천군은 29.7%이고 횡성군은 32.7%, 평창군은 31.5%로 두 지자체는 30%가 넘는다.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는데, 4개 지역은 2010년

대 초반에 모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인구 63,429명이고, 2012년 대비 12.47%, 약 1만 명이 감소하여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보이는 지역이다. 홍천군은 2021년 기준 인구가 68,365명으로 2014년 70,638명 대비 약 2,000명가량 인구가 감소했다. 또한,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40대 이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구감소도시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다. 횡성군의 인구는 2022년 기준 46,595명이다. 홍천군은 최근 근소하게 인구가 증가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와 사업체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것이 인구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박성남, 류수연, 최가윤 2023). 유아, 청년층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중장년

그림 2\_사례지역별 인구 변화(2002-2022)

(단위: 명, %)



\*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고령인구 비율

자료: 국가통계포털(2023)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층과 노년층의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21). 다른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비슷하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 이상 되는 초고령사회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 평창군은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평창군의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41,084명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구 중에서 청년 순이동률이 -5.47%로 다소 높은 편이고, 합계 출산율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낮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순이동률은 삼척시가 -0.0784, 홍천군 -0.0279, 평창군 -0.0515, 횡성군이 -0.0493으로 청년들의 지역이탈이 높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별 부가가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비스업으로 총부가가치의 72.7%를 차지하며 제조업은 11.1%로 전국 평균 3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강원연구원 2023). 제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국토연구원 2013), 강원특별자치도의 생산인구의 유출은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들여다 보면, 사례지역들은 세부적으로 다른 지표들을 보여준다. 2022년 기준으로 사례지역들의 합계출산률은 삼척시가 1.260, 홍천군이 1.023, 횡성군이 0.764, 평창군이 0.852이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순인구이동은 삼척시가 -3,687명,

표 3\_4개 사례지역의 주요 공간 관련 통계 현황

지자체	1인당 주거·상업·공업 면적	도시지역 인구비율	노후주택 비율	빈집비율
강원도	156.64㎡	83.4%	28.7%	12.1%
삼척시	370.16㎡	78.8%	40.8%	17.6%
홍천군	170.01㎡	52.7%	28.0%	13.8%
횡성군	216.19㎡	42.4%	25.0%	14.2%
평창군	322.59㎡	42.3%	21.0%	24.9%

주: 국가통계포털(2023), 2022년 통계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4\_사례지역별 응답 분석 결과 기술통계 요약

지자체	인구특성	평균	표준편차
삼척시 (57)	성별	5.261	1.3394
	연령	5.247	1.3390
	직업	5.244	1.4070
	출생지	5.255	1.3229
홍천군 (53)	성별	4.975	1.2476
	연령	4.951	1.2585
	직업	4.485	1.2774
	출생지	4.593	1.2503
횡성군 (43)	성별	5.122	1.1576
	연령	5.148	1.1223
	직업	5.099	1.1562
	출생지	5.143	1.1425
평창군 (48)	성별	4.909	1.3692
	연령	4.914	1.3632
	직업	4.886	1.3954
	출생지	4.915	1.3651

홍천군이 712명, 횡성군이 2,970명, 횡성군이 -292명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2023). 또한, <표 3>과 같이 사례지역들은 1인당 주거·상업·공업 면적, 도시 지역 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교통 측면에서도 춘천시와 원주시 사이에 위치한 홍천군과 횡성군은 중앙고속도로, 각각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한편, 평창군은 영동고속도로, 삼척시는 동해고속도로가 통과한다. 춘천시에 인접한 홍천군과 원주시에 인접한 횡성군, 산악지형으로 둘러싸인 평창군과 해안 도시 삼척시는 각기 다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IV. 응답 평균값 비교 분석 결과

##### 1. 분석 결과 개요

지자체별 인구특성별 응답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4개 지역의 평균값의 범위는 다소 달랐지만, 각 지역의 평균값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5\_삼척시 응답 분석 결과

구분	남녀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남(N=29)		여(N=28)		통계값(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5 통학생 감소 인지	5.897	1.0805	4.929	1.4889	2.816**
3	1 자연경관 특산품 보유	5.379	1.2653	5.964	1.1701	-1.813*
	4 자연을 즐기기 위한 다수 관광객 방문	5.655	1.2034	6.143	0.9315	-1.714*
8	2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함	4.828	1.3646	5.607	1.1001	-2.369*
구분	연령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40세 미만(N=25)		40세 이상(N=32)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6 다수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4.440	1.7340	5.594	1.2664	-2.795***
3	9 자연자원 활용 관광거점의 중요 입지 지역	4.875	1.5126	5.719	1.1140	-2.304**
4	5 자연 경치의 홍보 필요	5.520	1.3577	6.124	0.9419	-1.985*
	10 지역주민이 협심하여 지역산업 선도 필요	5.480	1.0050	5.969	1.0313	-1.801*
5	2 유명한 역사적, 전통문화 존재	4.480	1.5578	5.219	1.4970	-1.807*
	3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생활영역 불편 감소 의향	4.960	1.3687	5.625	1.1570	-1.946*
	6 문화유산 전수를 위한 전통행사 필요	5.080	1.5253	5.750	1.0776	-1.863*
	8 지역가치로서의 문화유산 저력 보유	5.600	0.8660	4.906	1.4670	2.094**
13	주민 생활 편의시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5.680	1.1804	6.188	0.8206	-1.913*
	15 지역 주민 생활기반 안정이 우선	5.720	1.0614	6.188	0.8590	-1.791*
	6 2 유무형 문화재 지정이 중요	5.280	1.4866	5.938	1.1053	-1.848*
7	7 신규 기업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5.320	1.5470	6.125	0.9070	-2.456**
	6 단발적 지역행사라도 다수 참여 의사가 존재	4.760	1.5078	5.500	1.1359	-2.043**
17	관광객보다는 일상적 생활공간 지원이 더 필요	4.680	1.5470	5.375	1.3854	-1.761*
	19 한달살기, 원격근무와 같은 지역 체류 사례가 있으며, 지역 잠재력이 있음	4.160	1.9079	5.250	1.3198	-2.437**
	20 대표공간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함	5.240	1.2675	5.938	1.0140	-2.247**
8	2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함	4.480	1.4236	5.469	1.1355	-1.690*
구분	직업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주민(N=44)		공무원(N=1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	9 자연자원 활용 관광거점의 중요 입지 지역	5.523	1.1100	4.750	1.9598	1.787*
5	4 지역 문화유산이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음	4.955	1.3802	3.538	2.0255	2.364**
	16 지역산업이 지역 일자리와 삶의 기반을 제공해야 함	4.114	0.9454	5.308	1.3775	1.977*
6	1 지역 전통문화 가치 계승할 필요	5.614	1.3332	4.615	2.0223	2.093**
	2 유무형 문화재 지정이 중요	5.841	1.0553	5.000	1.8708	2.084**
	3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문화유산 보유	5.068	1.3011	4.000	1.9579	1.850*
	6 지역 소재 큰 기업이 지역경제 기반으로 지켜야 함	5.705	1.0908	4.923	1.9774	1.854*
9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5.795	1.2119	4.923	2.0191	1.936*
	7 15 현 지역축제는 단발성으로 지역에 도움이 안됨	4.341	1.4776	5.308	1.7974	-1.771*
8	2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함	5.386	1.2049	4.615	1.4456	1.752*
	7 갑작스러운 이벤트는 지역에 도움이 안됨	4.545	1.5319	5.615	1.1929	-2.652**
구분	출생지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도박이(N=31)		외지인(N=26)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17 안정적 주거환경 보유	5.129	1.6071	4.077	1.5211	2.535**
	18 지역주민들간 원활한 관계 유지	5.645	1.0816	4.923	1.1286	2.452**
3	13 산업시설이 비교적 더 활성화되어 있음	4.710	1.6969	3.962	1.3411	1.858*
	14 산업이 유동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4.871	1.3842	4.154	0.9672	2.293**
	15 산업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4.710	1.6772	3.923	1.3834	1.940*
4	7 산업을 바탕으로 중심지로서의 가능성 존재	5.419	1.4089	4.846	1.1204	1.710*
5	14 특정 산업/기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5.742	1.1538	5.038	1.2800	2.161**
8	5 축제, 지역행사를 위한 추가적 투자 필요	5.935	1.1528	5.462	0.9479	1.703*
	8 안정적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	5.452	1.0905	4.769	1.2746	2.149**

주: \*p<0.1, \*\*p<0.05, \*\*\*p<0.01

지역별 설문 응답 값의 t-test 분석 결과는 이어지는 지역별 결과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설문 문항 중, 인구특성별로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낸 질문들, 즉, 통계값으로 유의한 질문들을 표로 정리하였다. 유의 수준은 p값이 0.1, 0.05, 0.01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설문이 7점 리커트 척도로 된 설문문항이기 때문에 중앙값(Median)인 4와 각 사례지역의 인구특성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네곳의 지자체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응답에서 주민들의 응답 평균값이 보다 높았다. 젊은 층(40세 미만)과 중장년층(40세 이상)의 값에서도 중장년층의 평균값이 젊은 층의 값보다는 비교적 높았다. 또한, 지역 출신 사람들이 외부에서 해당 도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보다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응답군 특성별로는 일반적으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질문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평균값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지역별 응답 분석 결과

### 1) 삼척시

<표 5>는 삼척시를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 인식에 대한 응답을 t-test 한 결과로, 그 중 유의미한 통계값을 가지는 질문들을 제시해 놓았다.

남녀간 응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결과가 많지 않았다. 남녀 모두 지역의 자연경관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를 활용한 관광객이 증가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남/여: 3-1(5.96/5.38), 3-4(6.14/5.66)). 중장년층의 주민들이 젊은 층에 비해 지역이 보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40세 이상/미만: 4-5(6.12/5.52), 5-2(5.22/4.48), 5-6(5.57/5.08),

6-2(5.94/5.28)). 그렇기는 하지만 연령이 높은 지역 주민들은 현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하는 것에 추가적인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생활편의시설이나 주민의 생활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나 사업이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값이 비교적 높았다(40세이상/미만: 5-13(6.19/5.68), 5-15(6.19/5.72), 7-17(5.38/4.68)).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서도 주민들의 응답의 평균값이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주민들은 지역의 문화 자산에 대해 공무원들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은 모두 지역의 문화유산이 관광객 유입에 영향을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은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보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공무원/주민: 7-15(5.31/4.11), 8-7(5.62/4.55)). 지역출신 주민들의 응답 평균값이 외지인들 보다 다소 높았다. 생활기반에 관한 질문들에서는 타지역 출신의 주민들은 주거환경이나 이웃간의 원활한 관계,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질문에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토박이/외지인: 1-17(5.13/4.08), 1-18(5.65/4.92), 8-8(5.45/4.77)). 이 질문들에 대한 응답들에서 외지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때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홍천군

홍천군의 설문조사 결과를 t-test 분석하여 유의미한 통계값을 가지는 질문들을 <표 6>에 상세하게 제시했다.

홍천군의 남녀간 인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남녀 모두 지역축제와 같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단발적 지역축제와 방문객의 방문에 대해서는 중위값보다 낮은 응답값을 보였다(남/녀: 7-15(44.56/3.74),

표 6\_홍천군 응답 분석 결과

구분	남녀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남(N=18)		여(N=35)		통계값(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	8 젊은 사람들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주택 공급 필요	5.944	0.6391	5.057	1.3272	2.672**
	10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기회 필요	6.056	0.6391	5.400	1.1428	2.253**
3	9 자연자원 활용 관광거점의 중요 입지 지역	5.333	1.1882	4.686	1.2071	1.869*
4	6 마트, 쇼핑몰, 호텔과 같은 현대적 시설이 필요	5.944	0.7254	5.343	1.3491	1.760*
	9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유입 필요	6.389	0.6077	5.771	1.2623	1.955*
	10 지역주민이 협심하여 지역산업 선도 필요	5.667	0.8402	4.943	1.4337	2.313**
5	11 지역 대표 산업 존재	4.778	1.2154	4.114	1.3671	1.803*
7	4 지역 일에 계절적으로 강도 차이가 존재	5.833	0.9235	5.229	1.2148	1.852*
	15 현 지역축제는 단발성으로 지역에 도움이 안됨	4.556	1.5038	3.743	1.3793	1.916*
8	6 단발적 방문객은 지역발전에도움이 안됨	4.444	1.5424	3.543	1.4213	2.069**
	7 갑작스런 이벤트는 지역에 도움이 안됨	5.389	1.3779	5.514	1.5973	4.439***
	8 안정적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	4.000	1.2834	4.657	1.2821	-1.766*
구분	연령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40세 미만(N=24)		40세 이상(N=2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	10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기회 필요	5.333	1.1672	5.862	0.8752	-1.883*
3	7 관광직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잘 구성되어 있음	3.125	1.4836	4.310	1.6713	-2.734***
5	5 내 집이 가치가 있다면 공개 의사 있음	3.875	1.9182	4.862	1.5749	-2.020**
	7 문화유산 기반으로 한 정기적 지역축제 존재	4.083	1.7917	5.241	1.2999	-2.643**
	9 보존 가치있는 유산 존재	4.375	1.3453	5.000	1.1019	-1.825*
7	15 현 지역축제는 단발성으로 지역에 도움이 안됨	3.583	1.6129	4.379	1.2368	-1.983*
구분	직업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주민(N=45)		공무원(N=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2 관광객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됨	4.378	1.4188	3.500	0.7559	2.575**
	8 젊은 사람들의 증가는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됨	5.444	1.0347	4.750	0.8864	1.988*
	18 지역주민들간 원활한 관계 유지	5.222	1.1055	4.375	1.0607	2.068*
2	1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바랍	5.111	1.3521	4.375	0.9161	1.930*
	2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필요	5.867	0.9909	5.000	0.9258	2.413**
	3 관광객을 위한 지역상점 증가 필요	5.400	1.1362	4.500	1.8516	1.864*
	4 예술인마을, 외국인마을 등을 조성해 사람 유입 필요	4.889	1.5699	3.750	0.7071	2.003*
3	11 도시적 특성(관광서, 상가거리)의 중심지 존재	4.622	1.4027	5.625	0.7440	-2.984***
4	5 자연 경치의 홍보 필요	5.644	0.8831	4.625	1.7678	2.531**
5	12 지역산업의 재육성 정책 필요	5.356	1.0904	4.250	1.1650	2.497**
6	1 지역 전통문화 가치 계승할 필요	5.400	0.8893	4.625	1.6850	1.951*
7	2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됨	5.311	1.2399	4.750	0.7071	1.805*
	17 관광객보다는 일상적 생활공간 지원이 더 필요	5.089	1.1246	4.500	0.7559	1.867*
8	7 갑작스런 이벤트는 지역에 도움이 안됨	3.956	1.7445	5.250	1.4880	-2.206*
구분	출생지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토박이(N=25)		외지인(N=2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1 외부 관광객이 많은 편	4.160	0.7461	4.750	1.6015	-1.685*
2	1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바랍	4.600	1.1547	5.357	1.3666	-2.185**
	2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필요	5.440	1.0033	6.000	0.9813	-2.050**
	4 예술인마을, 외국인마을 등을 조성해 사람 유입 필요	4.120	1.5895	5.250	1.2656	-2.840***
	8 젊은 사람들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주택 공급 필요	5.040	1.3064	5.643	1.0616	-1.830*
3	9 자연자원 활용 관광거점의 중요 입지 지역	4.600	0.2910	5.179	1.1239	-1.730*
	12 지역산업활동을 위한 산업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4.040	1.2069	4.714	1.4105	-1.875*

주: \*p<0.1, \*\*p<0.05, \*\*\*p<0.01

8-6(4.44/3.54)). 반면, 산업 발전과 인구 유입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았다(남/여: 2-8(5.9/5.06), 4-9(6.39/5.77)). 남녀간 응답차이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의 응답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대별 응답차이 결과는 젊은 연령대의 응답자들이 보다 평균값이 낮았다. 젊은 연령대의 응답에서도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40세 이상/미만: 7-15(4.38/3.58)).

주민들과 공무원들 간의 응답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평균값이 공무원들보다 높았다. 정책 수요자인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다소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주민/공무원: 2-2(5.87/5.00), 2-3(5.40/4.50)). 지역 주민들은 지역축제가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데 긍정적인 반면 공무원들은 다소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주민/공무원: 7-2(5.31/4.75)). 하지만, 정책을 기획 시행하는 공무원들은 단발적이고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관광객과 지역축제에 대해 정책 수요 공급자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출신 주민과 타지역 출신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타지역 출신 응답의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다소 높았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높은 값을 나타냈고(토박이/외지인: 2-2(5.44/6.00)), 다른 질문들에 비해 젊은 사람들의 인구 유입을 위해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다는 데 두 집단 모두 다소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외지인의 평균값이 지역 출신 주민들보다 높았다(토박이/외지인: 2-8(5.04/5.64)).

### 3) 횡성군

횡성군의 분석 결과는 <표 7>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의 응답 차이에서 두

드러진 특징으로 경제 부문에 대한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았고, 그 외의 질문들에는 여성의 평균 응답이 다소 높았다. 두 응답자 모두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횡성군 주민들은 열악한 양육 환경이 인구 유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평균 차이에서는 여성의 응답이 다소 높았다(남/여: 2-9(5.62/6.00)).

연령간 차이를 보면, 유의한 통계값이 나온 질문들 모두에서 중장년층(40세 이상)의 사람들의 응답이 젊은 층의 평균값 보다 높았다. 청년층들은 횡성군이 경제적으로 정착하기에 비교적 좋은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높은 평균값과 연결되는 결과이다(40세 이상/미만: 1-7(5.21/4.17), 5-12(5.79/4.96), 5-17(6.00/5.17), 8-9(5.79/5.13)). 지역의 자연자원을 즐기기 위한 방문객이 많아지길 희망하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40세 이상/미만: 4-4(5.84/5.21)).

주민과 공무원의 응답 차이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보다는 주민들의 응답 평균값이 높았다. 이 결과로 공무원들보다는 주민들이 비교적 지역의 잠재력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두 응답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은 지역의 방향성과 정책 면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정책 수요자인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와 수단들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출신 응답자와 외지인 간의 응답 차이 결과에서는 다른 응답 계층의 차이만큼 두드러지는 않았다. 횡성군에서는 한우 축제가 약 20여 년간, 더덕 축제는 1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현재 횡성군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지역 출신 사람들에게서 보다 높게 확인되었다(토박이/외

표 7\_횡성군 응답 분석 결과

구분	남녀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남(N=16)		여(N=27)		통계값(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4 주말 별장용으로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	4.500	1.5492	5.407	1.2172	-2.005*
	12 지역주민끼리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음	4.875	1.0878	5.667	0.9199	-2.548**
	20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가 필요	5.063	1.1815	5.741	1.0952	-1.869*
2	4 예술인마을, 외국인마을 등을 조성해 사람 유입 필요	5.625	1.2042	4.667	1.6408	2.197**
	9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 유출 방지 필요	5.188	1.3769	6.000	0.8321	-2.420**
3	3 자연자원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음	4.500	1.3166	5.444	1.0860	-2.422**
	13 산업시설이 비교적 더 활성화되어 있음	5.063	1.6112	4.259	1.1298	1.755*
	14 산업이 유동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5.063	0.9287	4.481	0.9755	1.946*
5	8 지역가치로서의 문화유산 저력 보유	4.563	1.2633	4.296	1.1706	-1.892*
7	6 단발적 지역행사라도 다수 참여 의사가 존재	4.938	0.7719	5.444	1.0127	-1.848*
8	4 현 축제를 잘 활용하면 지역에 도움이 될 것	4.688	0.9465	5.481	0.8490	-2.761**
구분	연령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40세 미만(N=24)		40세 이상(N=1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7 타지역 청년들이 정착하기에 괜찮은 환경 보유	4.167	1.5511	5.211	1.1822	-2.504**
	10 젊은 외국 노동자들의 정착 필요	4.667	1.2394	5.579	0.8377	-2.871***
	14 젊은 사람들의 유턴 현상(회귀) 존재	3.917	1.2482	4.632	1.1648	-1.936*
2	4 예술인마을, 외국인마을 등을 조성해 사람 유입 필요	4.667	1.6061	5.474	1.3892	-1.765*
	3 지역 대중교통이 상업요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4.083	1.5299	5.000	1.3333	-2.097**
3	19 우리 지역이 도내 경제사회 거점 역할 가능할 것	4.208	1.3507	5.000	1.0000	-2.207**
	4 지역경치를 즐기 위한 방문객이 보다 많아지길 희망	5.208	1.3507	5.842	0.8983	-1.841*
4	7 산업을 바탕으로 중심지로서의 가능성 존재	4.458	1.1413	5.263	1.0976	-2.346**
	5 내 집이 가치가 있다면 공개 의사 있음	4.292	1.4289	5.053	1.3112	-1.816*
5	12 지역산업의 재육성 정책 필요	4.958	1.2329	5.789	0.7133	-2.769***
	17 지역 대표 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필요	5.167	1.0072	6.000	0.8165	-2.996***
	7 현 지역축제는 단발성으로 지역에 도움이 안됨	3.792	1.3507	4.684	1.6684	-1.892*
7	18 지역 대표공간 거리 활성화가 중요	5.042	1.1602	5.684	0.8852	-2.060**
	20 대표공간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함	5.042	1.1602	5.842	0.7647	-2.716**
	8 7 갑작스런 이벤트는 지역에 도움이 안됨	3.917	1.1765	5.053	1.3529	-2.895***
9 지역 경제를 위해 산업 활성화가 중요	5.125	1.0347	5.789	0.7873	-2.391**	
구분	직업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주민(N=33)		공무원(N=1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1 외부 관광객이 많은 편	4.879	1.1661	4.100	1.1972	1.813*
	20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가 필요	5.697	1.1588	4.800	0.9189	2.536**
2	9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 유출 방지 필요	5.879	1.1112	5.100	0.9944	2.109*
4	10 지역주민이 협심하여 지역산업 선도 필요	5.333	0.8898	4.600	1.5055	1.924*
5	12 지역산업의 재육성 정책 필요	5.545	0.9384	4.600	1.3499	2.069*
	17 지역 대표 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필요	5.727	0.9108	4.900	1.1005	2.163*
6	1 지역 전통문화 가치를 계승할 필요	5.182	1.1580	4.600	0.8433	1.740*
7	1 누구나 알만한 지역 대표 전통축제 존재	6.000	1.0308	5.000	1.4907	1.983*
	18 지역 대표공간거리 활성화 필요	5.545	0.9045	4.600	1.3499	2.078*
8	2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함	5.303	1.0454	4.500	1.2693	1.822*
구분	출생지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도박이(N=19)		외지인(N=2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	7 유명한 지역 전통 축제 존재	6.158	0.8983	5.583	1.2129	1.784*
3	7 관광지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잘 조성되어 있음	3.842	1.6077	4.958	1.6280	-2.248**
4	7 산업을 바탕으로 중심지로서의 가능성 존재	4.421	1.1213	5.125	1.1539	-2.018*
6	2 유무형 문화재 지정이 중요	5.579	0.9612	4.917	1.0180	2.186**
	5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조직, 기능 필요	5.789	1.0842	5.125	0.9470	2.109**

주: \*p<0.1, \*\*p<0.05, \*\*\*p<0.01

지인: 2-7(6.16/5.58)). 주민들은 외부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이 잘 마련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역 출신 사람들이 이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토박이/외지인: 3-7(3.84/4.96)).

#### 4) 평창군

평창군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표 8> 참조) 여러 문항들에서 다른 지역의 결과 값에 비해 다소 평균값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평창군의 현 상황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녀간 응답의 결과를 살펴보면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이지는 않았고, 중앙값보다 낮은 평균값들을 보이는 질문들도 비교적 많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질문들 중에서는 남성 응답의 평균값이 여성의 평균값보다 다소 높았다. 산업의 발달과 관련된 질문들에서 비교적 낮은 응답이 많았고(남/여: 3-13(4.72/3.96), 3-14(4.28/3.57), 3-15(4.28/3.57), 3-18(4.56/3.83)), 문화시설과 교통, 사회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남/여: 3-16(4.36/3.17), 3-17(4.04/3.09), 3-20(4.52/3.96)). 남성 보다는 여성들이 단발적인 전략들은 지역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남/여: 7-15(5.04/4.39), 8-6(4.64/3.96), 8-7(5.00/4.17)).

한편, 연령 간 차이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질문들이 많지 않았다.

주민과 공무원들의 응답 결과에서 공무원들은 다른 문항보다 1-5 질문에 매우 높은 평균값(6.313)을 나타냈는데, 지역의 통학생이 감소하는 것을 지역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주민/공무원: 4-8(5.94/4.88))과 산업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들(주민/공무원: 5-17(5.19/

4.50), 6-9(5.34/4.50))에서는 지역주민들은 높은 값을 공무원들은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 두 응답자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축제나 지역의 대표공간에 관한 시각도 두 응답자 간에 차이를 보였다. 지역 주민들은 단발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이벤트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낮은 평균값을 보였고, 공무원들은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주민/공무원: 7-15(4.40/5.38), 8-7(4.22/5.38)). 공무원들에 비해 주민들은 지역의 대표공간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주민/공무원: 7-20(5.31/4.38)).

지역 출신 주민과 타 지역 출신 주민들 간의 응답 차이에서는 대부분의 질문들에서 지역 출신의 주민들이 응답 평균값이 높았다. 주민 간의 원만한 관계에 관한 질문에서 외지인들이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타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토박이/외지인: 1-11(5.70/4.36), 1-12(5.35/4.60)). 또한 지역 출신 사람들이 산업기반 여건이 더 나아질 길 희망하고 있었다(토박이/외지인: 6-6(5.35/4.56), 6-7(5.91/4.92), 8-9(5.70/4.88)). 지역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두 응답자 모두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는데 지역 출신의 사람들의 평균값이 보다 높았다(토박이/외지인: 5-13(6.00/5.36)).

### 3. 결과 종합 및 시사점

조사결과 성별에 따라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삼척시이다(<표 5> 참조). 다른 사례 지역들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인 질문들이 지역산업이나 지역 행사에 관한 질문들이었는데, 삼척시에서는 이런 지역 현안들에서 성별에 따른 의견에 차이가 크지 않았고, 비슷하게 높거나 낮게 응답하였다. 지역산

표\_8 평창군 응답 분석 결과

구분	남녀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남(N=25)		여(N=23)		통계값(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2 관광객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됨	5.080	1.1518	4.435	1.4086	1.729*
	15 어린 연령층이 있는 편	4.600	1.3844	3.304	1.5793	3.011***
	17 안정적 주거환경 보유	4.880	1.6912	4.000	1.3484	2.001*
3	13 산업시설이 비교적 더 활성화되어 있음	4.720	1.5416	3.957	1.3307	1.841*
	14 산업이 유동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4.280	1.5144	3.565	1.3760	1.713*
	15 산업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4.280	1.4295	3.565	1.3082	1.809*
	16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4.360	1.8457	3.174	1.6139	2.374**
	17 지역 대중교통이 상업요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4.040	1.7673	3.087	1.8069	1.845*
	18 주요 산업들이 성장가능성이 충분함	4.560	1.5022	3.826	1.2668	1.835*
5	20 외지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회 인프라 필요	4.520	1.6361	3.391	1.5880	2.425**
	1 문화유산도시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	4.560	1.3254	5.217	1.2777	-1.74*9
10 개발사업 중 문화제가 발견되면 진행보다 보존이 중요	5.360	1.2871	4.652	1.5258	1.730*	
7	15 현 지역축제는 단발성으로 지역에 도움이 안됨	5.040	1.2741	4.391	1.1575	1.848*
8	6 단발적 방문객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됨	4.640	1.4686	3.957	1.2605	1.734*
	7 갑작스런 이벤트는 지역에 도움이 안됨	5.000	1.2247	4.174	1.3366	2.226**
구분	연령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40세 미만(N=32)		40세 이상(N=16)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16 지역을 잘 모르는 청년의 유입이 우려	4.906	1.2536	5.000	1.8974	2.201**
4	10 지역주민이 협심하여 지역산업 선도 필요	5.125	1.1288	5.125	1.5438	1.831*
7	20 대표공간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함	5.313	1.2811	4.375	1.7078	-2.190**
구분	직업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주민(N=32)		공무원(N=16)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5 지역의 통학생 감소	5.625	1.1846	6.313	0.9465	-2.176**
1	14 젊은 사람들의 유턴 현상(회귀) 존재	3.688	1.3545	4.563	1.4592	-2.005*
	15 어린 연령층이 있는 편	3.625	1.4756	4.688	1.6621	-2.166**
4	8 생활편의시설 확충 필요	5.938	1.2427	4.875	1.8930	2.036*
5	17 지역 대표 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필요	5.188	1.1198	4.500	1.3166	1.790*
	20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이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됨	5.000	1.2952	4.250	1.4376	1.760*
6	9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5.344	1.0035	4.500	1.4606	2.078**
7	11 재방문이 많은 유명한 거리 존재	5.188	1.0906	4.188	1.3769	2.535**
	15 현 지역축제는 단발성으로 지역에 도움이 안됨	4.406	1.2916	5.375	0.8851	-3.047***
	20 대표공간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함	5.313	1.2811	4.375	1.7078	1.940*
8	7 갑작스런 이벤트는 지역에 도움이 안됨	4.219	1.3377	5.375	0.9574	-3.436***
구분	출생지 간 응답 차이를 보인 질문	도박이(N=23)		외지인(N=25)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11 장기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음	5.696	1.3292	4.360	1.5513	3.210***
	12 지역주민끼리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음	5.348	1.3007	4.600	1.3540	1.951*
	20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가 필요	5.957	1.3644	5.200	1.0801	2.118**
2	7 유명한 지역 전통 축제 존재	6.000	1.3484	5.400	0.9574	1.764*
	9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 유출 방지 필요	5.913	1.4744	5.120	1.3638	1.930*
	10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기회 필요	5.826	1.4030	5.200	1.0000	1.767*
4	4 지역경치를 즐기기 위한 방문객이 보다 많아지길 희망	5.609	1.5880	4.880	1.2014	1.781*
	6 마트, 쇼핑몰, 호텔과 같은 현대적 시설이 필요	5.826	1.4970	4.920	0.9967	2.446**
	9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유입 필요	5.957	1.5219	4.880	1.0132	2.859***
5	3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생활영역 불편 감소 의향	5.217	1.4446	4.360	1.4967	2.019**
	6 문화유산 전수를 위한 전통행사 필요	5.609	1.3052	4.840	1.2138	2.108**
	11 지역 대표 산업 존재	3.783	1.6502	4.560	1.2936	-1.806*
6	13 주민 생활편의시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6.000	1.3484	5.360	1.0360	1.832*
	6 지역 소재 큰 기업이 지역경제 기반으로 지켜야 함	5.348	1.7218	4.560	1.2275	1.811*
	7 신규 기업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5.913	1.4744	4.920	0.9092	2.780***
7	1 누구나 알만한 지역 대표 전통축제 존재	5.565	1.5023	4.600	1.3229	2.354**
	17 관광객보다는 일상적 생활공간 지원이 더 필요	5.478	1.4731	4.600	1.1902	2.260**
	18 지역 대표공간·거리 활성화 필요	5.565	1.4086	4.720	0.8426	2.496**
8	1 먼 타지역에서 지역축제를 위해 방문하는 것은 중요	5.522	1.3774	4.840	1.0279	1.930*
	9 지역 경제를 위해 산업 활성화가 중요	5.696	1.3959	4.880	1.2014	2.161**

주: \*p<0.1, \*\*p<0.05, \*\*\*p<0.01

업에 대한 질문들(<표 1>의 문항 구분의 3)에서는 대부분 전체 평균(5.261)보다 낮게, 그리고 지역 행사나 축제에 해당하는 질문들에서는(<표 1>의 문항 구분의 7, 8) 남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삼척시는 4개 지역 중 유일하게 영동지역에 속해 있으며, 시지역으로서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79.1%로 홍천군 17.3%, 횡성군 11.5%, 평창군 10.2%에 비해 월등히 높다. 영서지역으로 춘천시와 원주시에 연결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은 성별에 따라 최소 11개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1> 참조). 이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지역축제, 지역행사, 갑작스러운 이벤트와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그리고 3개 지역 중 홍천군과 평창군은 산업발전, 청년일자리, 지역산업, 인프라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표 6>, <표 8> 참조). 두 지역은 2023년 8월 각각 195만 명과 207만 명 이상이 방문한 지역으로, 약 130만 명이 방문한 삼척시와 횡성군에 비해 약 1.5배 내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23). 4개 지역에서 모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남성의 응답 평균값이 더 높았는데, 외부 경제효과를 더 많이 본 두 지역에서 성별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는 연령 간 응답 차이에서 오히려 역전이 되는 결과를 보였다. 삼척시와 횡성군은 각각 17개와 16개 문항에 대하여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홍천군과 평창군에서는 각각 6개와 3개에 불과했다. 홍천군과 평창군에서는 중장년층(40세 이상)이 지역개발, 관광, 외국인 및 외국인 유입에 대한 더 높은 관심과 평가를 보였다(<표 5> 및 <표 8> 참조).

직업 간 응답 차이는 4곳 모두 10개 이상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현 지역

축제는 단발성으로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항목은 평창군과 삼척시에서, '갑작스러운 이벤트는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항목은 삼척시, 홍천군, 평창군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보다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러한 행정상의 홍보성 이벤트에 대한 불만족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큰 경향을 보여준다. 두 항목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횡성군에서는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라는 항목에 주민들이 유의미한 차이로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출생지 간 응답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평창군으로 총 20개 문항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8> 참조). 삼척시 9개, 홍천군 7개, 횡성군 5개 문항에서 평창군과 큰 차이를 보였다. 평창은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빈집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다른 사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다(<표 4> 참조). 평창에서는 '지역 대표산업이 존재한다'라는 항목을 제외하고 외지인들이 토박이들보다 두드러지게 큰 차이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표 8> 참조). 이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대부분 인적교류, 생활기반시설, 도시공간적 특성과 같이 도시공간 속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또한 영서지역의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지역에서는 관광 관련 문항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많았으나, 삼척에서는 산업과 관련된 항목들이 차이가 가장 많았다.

## V. 결론

축소도시를 내세운 도시 전략들은 인구나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들을 도시 쇠퇴의 문제로서 보지 않고 줄어든 도시 규모를 인정하고 그 도시의 상황에 맞는 도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의 많은 인구소멸도시 대응 전략들은 인

구와 관련된 통계적 수치를 빠르게 높이기 위한 관광 중심의 생활인구 확대 전략들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박성남, 류수연, 최가운, 2023).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그들의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지역의 역량이나 잠재력에 대해 주민들간에도 그리고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들은 인구감소, 인구유출, 초고령화사회와 같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 지역들이지만 함께출산율, 청년순이동률에도 차이가 있고, 지역의 산업기반 역시 다르다.

연구 결과, 공통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질문들은 문화유산 및 자연자원, 지역축제 및 행사 등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4개 사례지역 모두에서 지역행사, 축제, 예술인 마을, 위케이션과 같은 단발적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지역의 전략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관광산업으로 동일시하거나 일시적 효과를 기대하는 지역 전략들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것은 정책의 수혜자(중장년층, 지역주민 또는 외지인)와 실무자(공무원) 등 집단별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 대상 지역들은 모두 인구감소와 청년들의 지역이탈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로 이 문제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다. 하지만, 지역단위에서 인구, 입지, 지역 가치와 지역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 차이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높은 연령대, 지역주민, 토박이들이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평창군의 경우 연령과 직업에 따른 인식 차이가 거의 없었다. 두 집

단 간 인식 차이가 없는 질문들은 평균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값이 낮거나 높은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홍천군은 유의미한 차이의 평균값을 보이는 항목들에서 모두 외지인이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횡성군은 토박이와 외지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출신 지역에 따른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전체적 경향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인식 차이에서 드러나는 집단별 이슈들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 지역 모두에서 직업에 따라 가장 적은 인식 차이를 보인 항목은 입지(<표 1>의 문항 구분의 3과 4)와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반대로 가장 많은 항목은 지역 가치와 지역 생활양식(<표 1>의 문항 구분의 5~8)에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이것이 지역 가치의 창출과 활성화 전략보다 지역의 공간구조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공간구조 전략의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성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정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이곤수, 송건섭 2011; 이연숙, 박성남, 박경남 2013), 이는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인식의 괴리가 적은 공간구조에 대한 정책개발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가진다. 우선 설문조사의 회수율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 비교적 회수율이 높은 4곳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향후 다양한 인구감소지역들에 대한 다각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리커트 척도 조사로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값으로 응답 차이를 비교하게 되므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보다 심층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원연구원. 2023. 그림으로 보는 강원특별자치도 세상: 2021년 소득통계로 본 강원경제. 춘천: 강원연구원. [http://www.w.gi.re.kr/Home/H10000/H10400/H10401/boardView?board\\_key=11684](http://www.w.gi.re.kr/Home/H10000/H10400/H10401/boardView?board_key=11684)(2023년 10월 19일 검색).  
Gangwon Institute. 2023. Gangwon State as a Picture: Gangwon Economy based on Income Statistics for 2021. Chuncheon: Gangwon Institute. [http://www.w.gi.re.kr/Home/H10000/H10400/H10401/boardView?board\\_key=11684](http://www.w.gi.re.kr/Home/H10000/H10400/H10401/boardView?board_key=11684)(accessed October 19, 2023).
- 강원특별자치청. (2023). 위치/기후. <https://state.gwd.go.kr/portal/introduce/situation/position> (2023년 10월 10일 검색).  
Gangwon State. (2023). Location/Climate <https://state.gwd.go.kr/portal/introduce/situation/position> (accessed October 10, 2023).
- 구형수, 조판기, 윤정재, 이다예, 김민정, 정연준. 2020.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리·활용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Koo Hyeongsu, Cho Panki, Yoon Jeongjae, Lee Daye, Kim Minjung and Jeong Yeonjun. 2020. *How Can Publicly-Owned Vacant Property Save Our Shrinking Cities*,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국가균형발전종합시스템. 2022. 인구감소 대응. <https://nabis.go.kr/contentsDetailView.do?menucd=258&menuFlag=Y> (2023년 10월 4일 검색).  
National Balanced-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2022.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https://nabis.go.kr/contentsDetailView.do?menucd=258&menuFlag=Y> (accessed October 4, 2023).
- 국가통계포털. 2023. 국내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GTITLE01&menuId=M\\_01\\_03\\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GTITLE01&menuId=M_01_03_01) (2023년 10월 10일 검색).  
Korean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2023. National statistics.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GTITLE01&menuId=M\\_01\\_03\\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GTITLE01&menuId=M_01_03_01) (accessed October 10, 2023).
- 국토연구원. 2013. 제조업 일자리와 중산층 복원. 11월 15일. 보도자료.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3. Manufacturing Jobs and Middle-class Restoration. November, 15. Press Release.
- 나라살림백과. 2023.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 서울: 나라살림연구소. <http://firiall.net/wiki/1285#> (2023년 10월 10일 검색).  
Fiscal Reform Institute. 2023. Living population or relational population. Seoul: Fiscal Reform Institute. <http://firiall.net/wiki/1285#> (accessed October 10, 2023).
- 박성남, 류수연, 최가운. 2023. 인구감소지역 군집분석에 따른 군집별 대응방향. 도시설계 24권, 4호: 39-52.  
Park Sungnam, Ryu Suyeon and Choi Gayoon. 2023. Direction of Response by Cluster in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 *Urban Design* 24, no.4: 39-52.
- 박윤미. 2018. 인구감소, 축소도시, 그리고 도시재생. 건축 62권, 6호: 28-32.  
Park Yoonmi. 2018. Depopulation, Shrinking Cities,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U.S.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62, no.6: 28-32.
- 이근수, 송건섭. 2011.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 평택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권 2호: 487-509.  
Kon Su Yi, & Gun Sub Song. 2011. Public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Quality of Life": Case of Pyeongtaek Cit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3, no.2: 487-509.
- 이상호. 2016.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 3-17.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Lee Sangho. 2016. *An In-depth Analysis of Regional Employment Trends: Seven Analysis of 'Local Extinction' in Korea*. Local employment trends brief 2016 Spring. Umseong-gu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이연숙, 박성남, 박경난. 2013. 천사마을 축제사업을 통한 근린재생 파트너십 사례 고찰. 국토연구 78권: 37-51.  
Lee Yeunsook, Park Sungnam and Park Kyungnan. 2013. A Case Study of the Neighbourhood Regeneration Partnership for the Angel Village Festival.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78: 37-51.
- 이현정. 2021. 인구과소화 지역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거주실태 변화. 한국주거학회 32권, 2호: 23-35.  
Lee Hyungjeong. 2021. Uneven Distribut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Housing Outcomes in Depopulating Towns of Rural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2, no.2: 23-35.
- 임석희. 2019. 지방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성장과 쇠퇴의 특성. 대한지리학회 54권, 3호: 365-386.  
Yim Seokhoi. 2019. Local Small Cities's Population Redu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Growth and Declin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4, no.3: 365-386.
- 임형백. 2017. 인구감소시대에 축소도시를 활용한 도시계획. 도시행정학보 30권, 2호: 87-114.

- Lim Hyungbaek. 2017. Urban Planning using Shrinking City in Population Declining Age.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30, no.2:87-114.
16. 성은영, 임유경, 심경미, 윤주선. 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세종: 건축공간연구원.  
Seong Eunyoung, Lim Yookyoung, Sim Kyungmi and Yoon Zoosun. 2015. "Rhrinking Smart": Strategies and planning for Revitalization of Shrinking Communities. Sejong: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17. 손가영, 홍성조. 2023.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119권: 101-120.  
Son Gayoung and Hong Sungjo, 2023. Spatial Reduction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ith Population Decline.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19: 101-120.
18. 정광진, 유석연. 2021.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한 축소도시 유형 분석 연구, 도시설계 22권 5호: 125-140.  
Jung Kwangjin. and Yoo, Sukyeon. 2021. Analysis of The type of Shrinking City Considering Migration. *Urban Design* 22, no.5: 125-140.
19. 조명미, 안옥희. 2020. 지역자원에 따른 지역소멸지역의 유형화.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권 2호: 231-234.  
Jo Youngmi and An Okhee. 2020. Typification of local extinction area according to local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2, no.2: 231-234.
20. 통계청. 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6월 29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400&bid=205&act=view&list\\_no=383417](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400&bid=205&act=view&list_no=383417) (2023 10월 8일 검색)  
Statistics Korea. 2020. Population Movement and Future Population Forecast in the Soul Metropolitan Area for the Last 20 Years, June 29. Press release.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400&bid=205&act=view&list\\_no=383417](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400&bid=205&act=view&list_no=383417) (accessed October 8, 2023).
21. 한국관광공사. 2023. 한국관광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AreaDataForm.do#> (2023년 10월 17일 검색).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 Tourism Data.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AreaDataForm.do#> (accessed October 17, 2023).
22. 마스다 히로야. 2015.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김정환 역. 서울: 와이즈베리.  
増田寛也. 2015.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trans. Kim Junghwan. Seoul: Wiseberry.
23. 日本創成会議. 2014. 成長を続ける21世紀のために: 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 人口減少問題検討分科会. 東京: 日本創成会議
24. Hollander, J. B., Pallagst, K., Schwarz, T. and Popper, F. J. 2009. Planning Shrinking Cities.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125028\\_Planning\\_Shrinking\\_Cities](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125028_Planning_Shrinking_Cities) (accessed October 15, 2023).
25. Laursen, L. L. H. 2009. *Shrinking Cities of Urban Transformation*, Ph.D. diss., The Aalborg University, Aalborg.
26. Martinez-Fernandez, C., Audirac, I., Fol, S., and Cunningham-Sabot, E. 2012. Shrinking cities: Urban challenge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 no.2: 213-225.
27. Oswalt, P. and Rieniets, T. 2006. *Atlas of shrinking cities*. Ostfildern: Hatje Crantz.
28. Popper, D. E. and Popper, F. J. 2002. Small can be beautiful: coming to terms with decline. *Planning* 68, no.7: 20-23.

- 
- 논문 접수일: 2023. 10. 20.
  - 심사 시작일: 2023. 11. 3.
  - 심사 완료일: 2024. 2. 1.

---

## 요약

주제어: 인식 차이, 축소도시, 인구감소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축소도시는 인구와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줄어든 도시규모에 맞게 도시기능을 전략적이고 현명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의 접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구감소도시에 대한 연구적, 정책적 접근은 지역의 인구재증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역 전략 역시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축소도시 개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적정 규모의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4개 지역(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을 사례로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이(생활인구 포함) 지역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4개 지역 모두에서 인구특성별로 지역에 대한 현황,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인구감소라는 보편적 현상에 대한 해법이 지역의 특수성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함을 보여준다.

---